

“이사장 상징적 인물·대표는 국제적 전문가로”

광주비엔날레재단 내일 정관 변경 이사회

비상근 이사장·대표이사 체제 등 논의 세계적 안목의 인물이 대표 맡아 실질 업무 총괄 조직 안정성보다 혁신에 초점 ‘환골탈태’ 의견도

성년기에 접어들어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이 이사장·대표이사 체제를 새롭게 정비한다.

14일 재단은 오는 16일 제 152회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지난 이사회 서면결과보고·2016 회계 결산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관변경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는 향후 비엔날레 조직 운영 방향을 판가름하는 지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전운철 전 이사장, 지난 1월말 박양우 전 대표이사가 사퇴하며 조직을 책임지는 이사장·대표이사가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정관에 따라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차기 대표 선임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차기 대표를 선정하기에 앞서 이

사장과 대표이사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아 ‘육상육’ 논란을 빚었던 정관을 먼저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가동한 정관 개정 소위원회는 3개 안을 마련했다.

첫째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이사회 소집에 관한 부분만 관할하고 실질적 업무 총괄은 대표이사가 맡는 방식이다. 둘째는 대표이사직을 없애고 상임이사장으로 통괄한다는 안이다. 마지막 셋째는 현재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하고 대표이사를 실무자로 두는 방안이다.

정관 변경에 관해 미술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한 재단은 지난달 16일에는 미술·언론 등 지역 인사 7명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당시 첫

째안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장은 천천히 뿔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달 21일 재단 관계자는 윤 시장을 방문해 이 의견을 전달했고 윤 시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첫째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차기 대표 선임에 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 브랜드를 지닌 만큼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인물이 차기 대표를 맡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대표이사는 실무자로서 국제적 미술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사장은 굳이 미술계가 아니라도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나상우 광주미술협회장도 “다음 대표는 미술을 깊이 이해하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흘러나왔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이사는 “지금의

비엔날레는 광주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며 “단순히 미술을 잘 알기 보다는 미술계 전문가들이 가까이 일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전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으로는 안정성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엔날레는 관 주도도 치러지다 보니 공무원 기조로 편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로 선임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수를 끌 수 있는 사람을 뽑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현재 대표 물색에는 소극적인 행보다. 그동안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선정했던 관례를 따르겠다는 의향으로, 윤 시장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비엔날레는 광주시에서 예산을 받고 윤 시장이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관 변경 전이라도 적임자가 나오면 대표로 일단 선정할 후 정관이 정하는 직함 부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런던 템스강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는 아파트단지과 같은 곳이다. 3층 높이의 건물 5개동에 150여 가구가 거주하는 아담한 동네다. 그런데 별 볼 것 없는(?) 회색빛 주택단지를 둘러 보기 위해 매년 수만 여 명이 찾는다. 3년 전 기자가 취재한 날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쾌적한 풍경이 먼저 시선을 끈다. 붉은 색 벽돌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이 방문객을 맞는다. 경사지붕을 씌운 도시적 느낌과 광장을 향해 발코니를 낸 교외풍의 분

도시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였다.

3년 전 취재일화를 떠올린 건 최근 ‘이시세계 집합주택-근대공동 주거 백년의 역사’와 격월간 문학잡지 ‘릿터 4호’를 접하게 되면서다. ‘이시세계...’는 근대라는 새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고, 주거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를 밀도있게 조명한 책이다.

“우리나라 첫 고층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재건축됐지만 1920~1930년대 지어진 베를린의 서민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는 건축에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가요?

위가 고즈넉하다. 아파트 특유의 삭막함이 느껴지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스트리트는 버려진 슬럼가였다. 선박수송에 유리한 강을 끼고 있어 한때 유동인구가 10만 여 명에 달했지만 대도시로 변모하면서 철거위기에 직면했다.

맨 처음 버려진 코인스트리트에 눈독을 들인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었다. 강 건너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런던시청, 타워 브리지 등 관광명소와 연계하면 비즈니스 지구로 성장할 잠재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업자들의 계획이 알려지면 코인스트리트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규모 개발로 진행될 경우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는 데다 수십여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던 자신과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다행히 런던시의 지원을 이끌어낸 주민들 덕분에 코인스트리트는 지금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로 인한 이익 보다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다.” 20년 만 지나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무엇이 좋은 지도 모른 채 재건축에 매달리는 국내 현실을 꼬집은 대목이다.

최근에 발간된 격월간 문학잡지 ‘릿터’(Littor) 4호의 주제는 ‘부동산 크리피’, 괴팍한 또는 기이한 이라는 뜻의 단어 ‘크리피’(creepy)라는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부동산 세계를 다룬 9개 글이 수록돼 있다. 그중에서도 시선을 끈 건 ‘아파트크리피’였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요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가 소중한 고향인데도 어른들이 시세차익을 이유로 30년이 지나면 미련없이 재건축한다는 줄거리다.

괴연 언제쯤이면 우리도 아파트 시세 보다 ‘집’에 얽힌 추억들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의 아파트들이 시간과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될까. 오늘 아침 출근길, 여기저기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내걸린 낡은 아파트들이 유난히 쓸쓸스럽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윤상인

조준영

김현수

박고은

“교과서 속 클래식 음악 해설과 함께 들어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광주문화재단 21일 첫 공연

‘클래식과 친구하기.’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광주문화재단 기획 공연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올 첫 공연을 시작한다. 교과서 속에서만 접하던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직접 듣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은 무료(일반 2만원)로 관람할 수 있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올 1년

동안 7차례 다양한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주 프로그램은 팝 피아니스트 윤학과 함께 ‘달빛’ 등 클로드 드뷔시의 대표작을 들어보는 ‘해피버스테이 드뷔시’(4월4일)를 비롯해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라’로 불린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악 세계를 살펴보는 ‘리멤버 파바로티’(6월7일), ‘피아노의 신, 쇼팽’(7월25일), ‘클래식 큐페이터’(9월5일), ‘리스트 VS 파가니니’(10월24일), ‘시네마 클래식’(11월21일) 등이다.

21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화재단 소극

장에서 열리는 ‘아르츠 콘서트 런던 VS 뉴욕’은 영국 현지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상인씨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런던과 뉴욕으로 문화예술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피아니스트 조준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수, 첼리스트 박고은씨와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 폰 쇤필드의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카페 뮤직’, 프랑크 시나트라와 ‘뉴욕, 뉴욕’ 등을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천의 다리’ 주제

제1차 광주학 콜로키움 내일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6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제1차 광주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은 라틴어로 ‘모여서 함께 말한다’는 뜻으로 토론회와 세미나 등 전문가들의 연구 모임을 지칭한다. 광주학 콜로키움은 광주학 관련 전문가의 자유로운 연구모임의 취지로 출발,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천의 다리’를 주제로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발표한다. 광주천 다리 기원과 연혁, 다리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근대도시 광주를 조명할 계획이다. 또 천득염(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임영진(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이계표(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등 지역연구자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은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4월20일 2차 콜로키움에서는 손희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광주의 지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062-670-74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제4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현장을 취재하면서 지역문화 소통메신저로 활동할 ‘제4기 대학생 기자단’ 1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생 중 광주에서 취재·홍보 활동이 가능한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장 취재 기회와 함께 역량강화 워크

숍, 지역 언론사 탐방, 우수 기자 시상, 소정의 원고료 등이 제공된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3일까지 이메일 접수(press@gjcf.or.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2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CBS 성경암송 캠페인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하라” 출13:9

암송성경 1189

<암송성경1189>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정신을 살려 1,189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교회별로 1장씩 암송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만드는 디지털영상성경입니다.

유년시절 암송한 성경구절은 일생을 선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CBS는 전 세계 다음세대와 함께 성경암송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CBS와 함께하는 <암송성경1189> 제작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자격 교회 또는 기독교 기관(인원 제한 없음)

마감 선착순

암송 범위 1팀 1장

암송 방법 지정 형식 없음(일반, 노래, 율동 등 표현방법 자유)

암송 기간 암송범위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참가비 없음

암송촬영방법 ①교회 또는 기관에서 자체 촬영하여 CBS 전용서버로 업로드 단, 자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CBS 제작팀과 협의
②촬영기기 : 지정 없음(핸드폰, 캠코더 등 자유)

특전

01 디지털 암송성경은 독일 및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봉헌

02 박물관 및 기념관 특별전시(독일, 한국)

03 참가자는 ‘CBS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

04 기네스북 등재(도전)

참가신청 **CBS 홈페이지 www.cbs.co.kr**

문의전화 **02)2650-7936, 7937**